

KOSBI

제14-13호 2014. 11. 10

중소기업 포커스

국내 중소기업의
대중 수출 부진 원인 및 시사점

책임작성 | 최환석 연구원(02-707-9848, hschoi@kosbi.re.kr)
홍성철 전문위원(02-707-9835, schong@kosbi.re.kr)
엄부영 연구위원(02-707-9840, byeom@kosbi.re.kr)

※ KOSB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(www.kosbi.re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| 목 차

1. 연구 배경
2.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 현황
3. 대중 수출 부진 원인
4.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

| 요약

- 최근 한국의 對中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
 - 한국의 '14년 8월 대중 수출액은 약 120억 달러로 5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4개월 연속 마이너스(-) 증가율 기록
 - 부진이 지속되면서 중국 지역의 수출기여도 역시 주요 국가 및 권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
 - 9월 들어 감소세가 반등하였으나, 대중국 수출여건 변화 등으로 전반적인 하락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

- 한국의 전반적 對中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,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 부진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나는 모습
 -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 또한 4월 이후 5개월 연속 마이너스(-)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크게 부진한 모습
 - 중소기업 대중 수출 증가율(% , 전년동월대비): ('14.4) -2.6 → ('14.5) -16.8 → ('14.6) -6.8 → ('14.7) -6.9 → ('14.8) -4.6 → ('14.9) 9.1
 - 품목별로는 컴퓨터, 반도체,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
 - '14년 중소기업 대중 수출은 고무제품, 자동차 부품 등에서 소폭 상승했지만, 무선통신기기(-37.4%), 반도체(-25.6%), 컴퓨터(-25.3%) 등에서 큰 폭으로 감소

- 특히,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 부진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

- '14년(1~8월) 대기업 대중 수출은 78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.0% 감소한 반면, 동기간 중소기업 대중 수출액은 140억 달러를 기록하며 4.4% 감소

■ 이러한 대중 수출 부진은 경제침체 영향으로 나타났던 이전과는 달리, 中 성장 패러다임 변화,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

- 과거 대중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, 유럽 재정위기 등의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만 감소했지만, 최근에는 세계경기가 완만히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생

- 중국 수출과 한국의 대중 수출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탈동조화(decoupling) 발생

- 최근 대중 수출 부진은 크게 中 성장 패러다임 변화, 산업구조 고도화, 교역 구조 변화, 국내 기업의 대중 수출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발생

- 성장 패러다임 변화: 중국이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내수 및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중간재, 자본재 수입 감소

- 산업구조 고도화: 대형 장치산업 및 첨단산업 등에서 중국의 생산력 및 자급률이 상승하면서 수입 의존 감소

- 교역구조 변화: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이 확대되면서 자본재,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에 큰 영향

- 국내 기업의 대중 수출 경쟁력 약화: 한중간 기술 격차 감소 및 위안화대비 원화 가치 상승, 엔저 등으로 대중 수출 경쟁력 약화

■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,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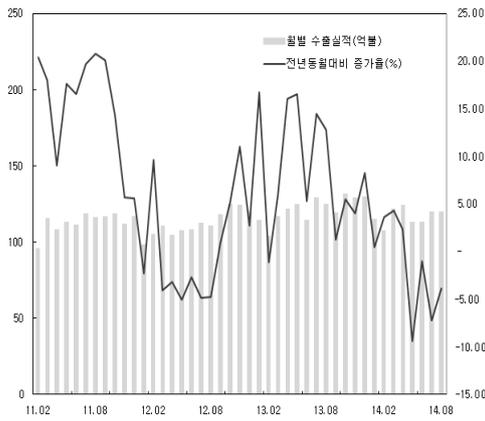
-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 마케팅 역량을 강화
- 중장기적으로는 수출패턴(교역구조)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, 지속적 R&D 투자 확대 및 제품 프리미엄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시도
- 그 외, 한중 FTA 체결 시 수출 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노력 필요

1. 연구 배경

■ 최근 한국의 對中 수출은 전반적으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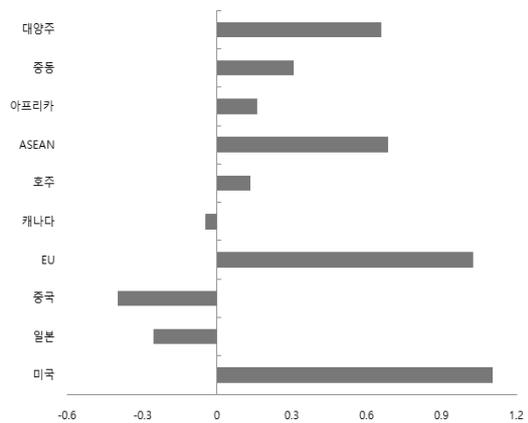
- 올해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3월 4.3%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5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(-) 증가율 기록
 - 부진이 지속되면서 중국 지역의 수출기여도(약 -0.4%p) 역시 주요 국가 및 권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
- 9월 들어 대중 수출 감소세가 소폭 반등하였으나, 대중국 수출의 구조적 여건 변화 등으로 전반적인 하락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

[그림 1] 한국의 對中 수출실적



출처: 한국무역협회

[그림 2] 주요 국가/권역별 수출기여도



출처: 한국무역협회

주: 기여도 = 국가별 수출증가율(1~8월 누적, 전년동기)

* 국가별 수출비중(1~8월 누적)

■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對중국 수출 또한 부진을 지속하는 가운데,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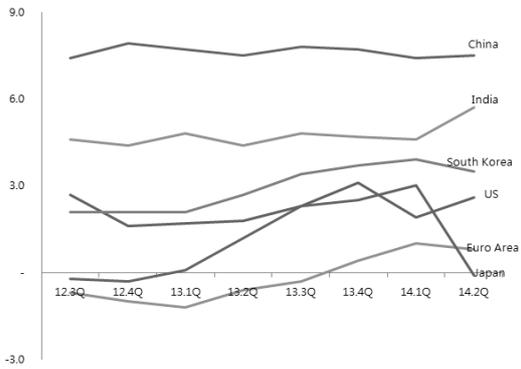
- '14년 8월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액은 약 18억 달러로 4월 이후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크게 부진한 모습
 - 중소기업 대중 수출 증가율(% , 전년동월대비): ('14.4) -2.6 → ('14.5) -16.8 → ('14.6) -6.8 → ('14.7) -6.9 → ('14.8) -4.6 → ('14.9) 9.1

- 한국의 대중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부진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나는 모습
 - '14년(1~8월) 국내 대기업의 대중 수출은 78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.0% 감소한 반면, 동기간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은 140억 달러로 4.4% 감소

■ 최근의 대중 수출 부진은 중국 수출과 탈동조화(decoupling) 현상을 나타내는 등 경제침체 영향으로 나타났던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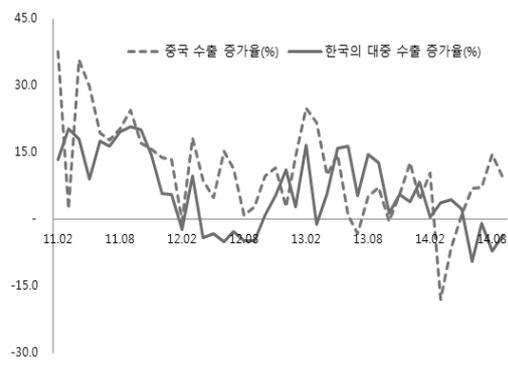
- 최근 대중 수출 부진은 세계경기가 완만히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별화된 양상
 - 과거 한국의 대중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, 유럽 재정위기 등의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만 감소했지만, 최근에는 세계경기가 완만히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생
 - 또한 중국 수출이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7% 이상 성장하면서 완전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면서, 중국 수출과 한국의 대중 수출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탈동조화 발생

[그림 3] 주요국 GDP성장률(% , 연율)



출처: Trading Economics

[그림 4] 중국 수출 증가율



출처: 한국무역협회
주: 전년동월대비 증가율(%)

■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대중 수출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, 국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- 향후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 지역의 수출 여건이 점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장·단기적 대응책이 필요

2.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 현황

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국내 중소기업 전체(對세계) 수출 실적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

- '14년 2분기 국내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액은 약 249억 달러로 지난 '12년 3분기 이후 수출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(-)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
 - 지역별로는 중국이 최대 수출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, 최근 FTA 체결국인 ASEAN, 미국, EU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대비 비중은 소폭 감소

[표 1] 국내 중소기업의 전체(對세계) 수출

(단위: 억달러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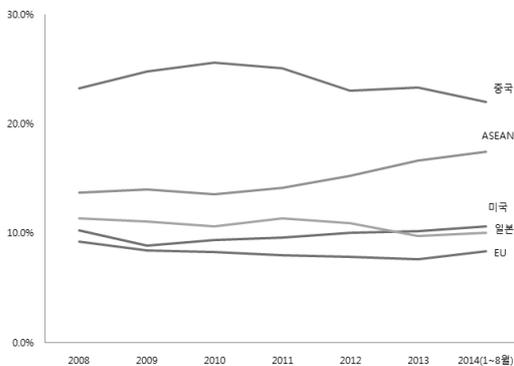
구분	'12.4Q	'13.1Q	'13.2Q	'13.3Q	'13.4Q	'14.1Q	'14.2Q
전체 수출액	259.0	218.3	251.4	236.2	253.9	227.0	248.9
수출 증가율	-1.7	-10.7	-4.6	-9.7	-2.0	3.9	-1.0

출처: 중소기업청

주: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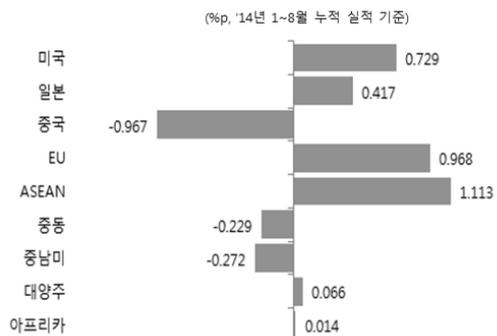
- 특히, 최근 국내 중소기업 수출 감소는 대중 수출 부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
 - '14년(1~8월) 국가별 수출기여도*에 따르면 중국이 -1.0%p를 기록하며 국내 중소기업 수출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
 - * 국가별 수출기여도: 해당 국가의 수출 증감에 비중을 곱하여 전체 수출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의미

[그림 5] 중소기업의 권역별 수출 비중



출처: 중소기업청

[그림 6] 중소기업의 권역별 수출기여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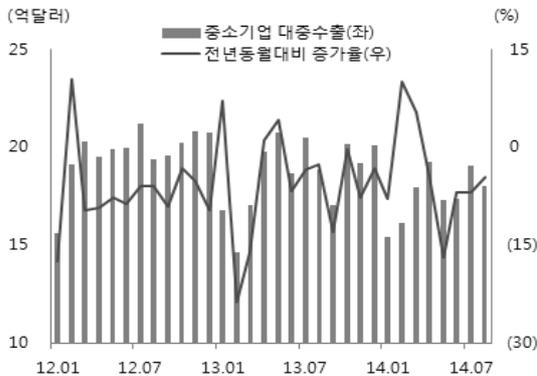


출처: 중소기업청

■ 중국은 '02년 이후 최대 수출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, 최근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크게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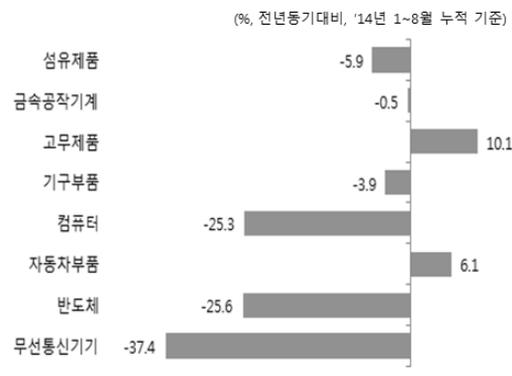
-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은 '92년 한중수교 이후 본격화되었으며, '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급증하여 현재 최대 수출 대상지역으로 부상
 - '14년(1~8월) 국내 중소기업의 전체(對세계) 수출액은 약 640억 달러로, 그 중 대중국 수출 비중이 22%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
- 그러나 금년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지난 2월 10.1% 고점을 기록한 이후 최근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크게 부진
 -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 증가율(% , 전년동월대비): (4월) -2.6 → (5월) -16.8 → (6월) -6.8 → (7월) -6.9 → (8월) -4.6 → (9월) 9.1
- 품목별로는 컴퓨터, 반도체,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
 - '14년 중소기업 대중 수출은 고무제품, 자동차 부품 등에서 소폭 상승하였지만, 무선통신기기(-37.4%), 반도체(-25.6%), 컴퓨터(-25.3%) 등에서 큰 폭으로 감소

[그림 7] 중소기업 대중 수출 증가율



출처: 중소기업청

[그림 8] 품목별 중소기업 대중 수출 증가율



출처: 중소기업청
 주: 섬유는 MTI 2단위, 나머지는 MTI 3단위 기준

■ 특히, 한국의 대중 수출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부진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어려움이 가중

- '14년(1~8월) 국내 대기업의 대중 수출은 78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.0% 감소한 반면, 동기간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은 140억 달러로 4.4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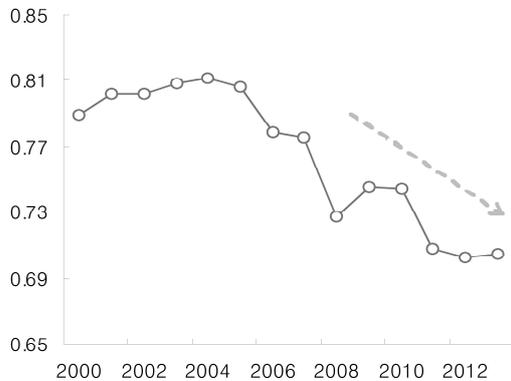
3. 對中 수출 부진 원인 분석

가.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

■ 中 성장 패러다임 전환 및 그에 대한 대응 미비로 한국의 대중 수출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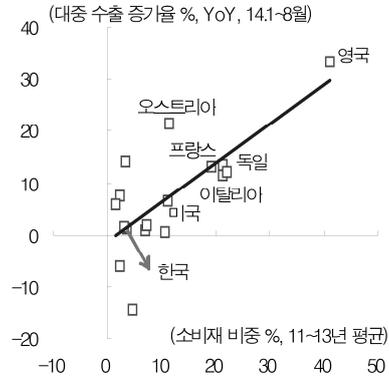
- 중국은 기존 투자·수출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내수 및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
 - 중국 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('06~'10년)에서 내수주도의 성장을 공식화하고, 12차 5개년 계획('11~'15년)을 통해 기존 투자·수출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
- 이러한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는 대중 수출 구조상 중간재와 자본재의 비중이 높은 한국 수출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
 -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와 자본재의 비중은 각각 73.2%와 22.9%('13년 기준)
-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(중간재·자본재 수입비중 감소)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면서 한중간 무역보완도*는 급격하게 하락
 - * 무역보완지수는 한 국가의 수출품 구성이 수입국의 수입품 구성과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유사성이 높음을 의미
 - 반면, 유럽과 같이 소비재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대중 수출은 비교적 양호

[그림 9] 한중 무역보완지수



출처: UN Comtrade
 주: 가공단계 기준으로 무역보완지수 산출

[그림 10] 주요국 대중 수출 구조와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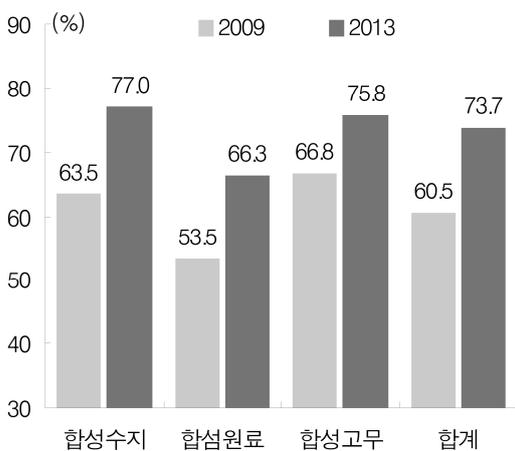
출처: UN Comtrade, 한국무역통계
 주: 대중 수출 증가율은 중국의 국별 수입 증가율로 대체

나. 中 산업구조의 고도화

■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수입 의존도가 완화되면서 대중 수출 감소

-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
- 이 과정에서 중간재의 국산화가 진전되면서 중국 수입 중 중간재의 비율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,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감소요인으로 작용
 - 최근 중국의 중간재 국내조달지수가 모든 산업에서 확대되었으며, 특히 무선통신, 철강금속, 화공품에서 큰 폭으로 증가)
- 대형 장치산업 및 첨단산업 등에 대한 中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 정책으로 인해 이들 산업의 생산력 및 자급률이 상승하면서 수입 의존도 감소
 - 특히,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주력 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, 석유제품, 석유화학 등과 관련된 산업의 중국 내 생산 및 자급률이 확대
- 한중간 기술 격차의 축소 역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높은 현지매입도 대중 수출 감소를 야기
 - 현지법인 현지매입 비중('12년): (대기업) 40.7%, (중소기업) 54.4%

[그림 11] 中 석유화학 3대 부문의 자급률



출처: 국제무역연구원(Trade Focus, 2014년 8월) 재인용

[그림 12] 주요 품목의 대중 수출

품목	순위	비중(%)	증가율(%)
평판디스플레이 및센서	2	11.9	-10.1
합성수지	3	5.4	0.7
석유제품	4	4.9	-23.5
석유화학 중간원료	7	4.5	-1.7
플라스틱 제품	13	1.9	-9.5
석유화학 합성원료	18	1.1	-46.2

출처: 한국무역통계
주: '14년 1~8월 전년동기대비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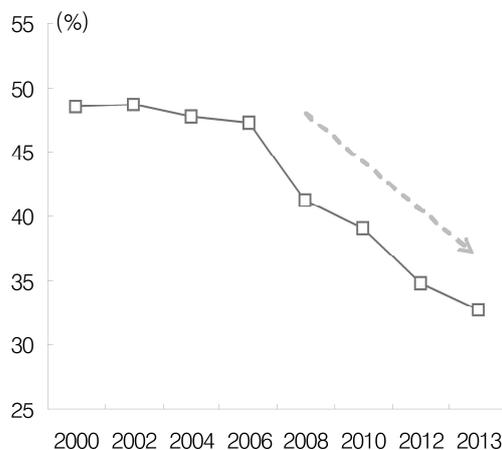
1) “최근 대중수출 부진 요인과 시사점”, 장상식·이봉철, 국제무역연구원, 2014년 8월

다. 中 교역구조의 변화

■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, 수입선의 다변화 등 교역구조 변화도 위험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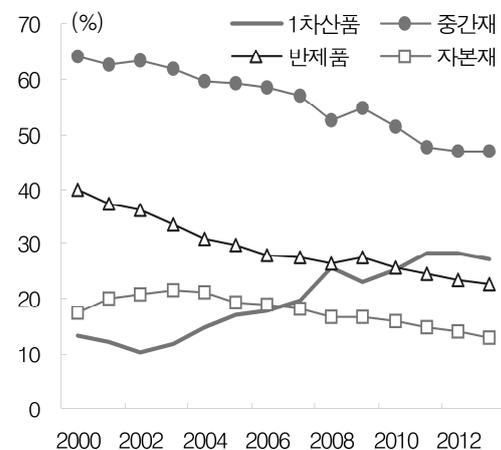
- 중국은 2000년대 들어 무역마찰을 억제하고,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추진
- 이를 위해 그동안 중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단순 가공무역(중간재를 수입한 후 이를 조립하여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)을 제한
 - 中 정부의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조치(금지품목: '04년 341개→'10년 1,803개)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공무역 비중은 축소('00년 48.5%→'13년 32.7%)
- 한국의 대중 가공무역 수출비중('07년 54.2%→'13년 47.6%)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
 - 대중 가공무역 수출비중(2013년): 대만 46.3%, 일본 34.3%, 미국 14.5%
- 또한 중국의 중간재(특히, 반제품) 수입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맞물려 연료·원자재 등 1차산품의 수입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있어 위험요인으로 작용
- 아울러 정치·경제적 관계 강화, 안정적인 수출입 도모 등을 위한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에도 주목할 필요

[그림 13] 中 가공무역 비중 추이



출처: CEIC

[그림 14] 中 가공단계별 수입 비중



출처: UN Comtrade

라. 대중 수출 경쟁력 약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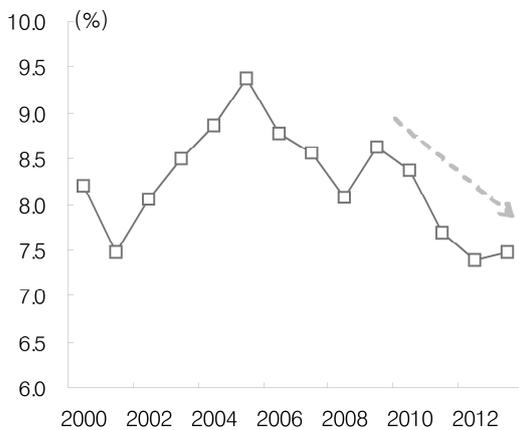
■ 한중간 기술 격차의 감소 속에 한국 제품의 中 시장 점유율은 하락 반전

- 한중 수교('92년) 및 중국의 WTO 가입('01년) 이후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락 반전
 - 한국 점유율(대중 수출/中 전체수입)은 2005년 9.4%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 되면서 2013년에는 7.5%를 기록
- 이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정책으로 기술경쟁력이 급속하게 향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중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

■ 아울러 위안화대비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수출 가격경쟁력도 약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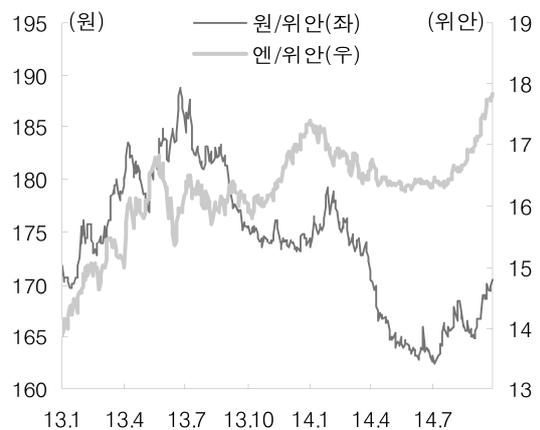
- 올해 원/달러 환율은 전년대비 하락하고 위안/달러 환율은 상승한 상황에서 원/위안 재정환율 역시 하락하면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
 - 환율(2013년 → 14.1Q → 14.2Q, 평균): 원/달러 1,095원 → 1,069원 → 1,030원, 위안/달러 6.15위안 → 6.10위안 → 6.23위안, 원/위안 178.1원 → 175.3원 → 165.4원
- 더욱이 대중 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엔화약세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, 특히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중 수출의 부정적 효과에도 유의2)

[그림 15] 한국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



출처: UN Comtrade

[그림 16] 원/위안 환율 및 엔/위안 환율



출처: 한국은행

2) “위안화 환율변동성 증가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주는 시사점”, 안지연 외, 2012년 11월, KIEP

4.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

■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,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

- 중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 둔화 및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
 - '14년 8월 中 산업생산 증가율(6.9%)이 5년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, 투자, 산업생산, 수출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완만한 둔화세가 나타남
 - 하지만 중국정부는 현 수준의 성장률에서 경기부양보다 구조조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
- 中 성장 둔화 및 구조조정 등으로 대중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
 - 유통망이나 브랜드, 자본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■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대중 수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필요

- 한중간 기술 격차 감소 및 최근 엔저 지속 등으로 인한 제품 경쟁력 약화에 대비해 수출 마케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
 - (정책당국)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수출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등과 같이 기존의 양적 마케팅 지원을 질적 마케팅 지원으로 개선할 필요
 - (중소기업) 중국내 유통망 확충 및 판로 개척, 브랜드 인지도 개선 등을 통한 대중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

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패턴(교역구조)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, 제품 프리미엄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시도할 필요

-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 및 구조조정에 대비해 중간재/자본재 수출에서 소비재 품목으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

- 국내 기업의 대중 수출 품목 중 소비관련 품목 비중은 37.9%, 투자관련 품목 비중은 62.1%³⁾로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 및 구조조정에 대비해 소비재 품목으로의 수출 구조 다변화를 시도할 필요
- 또한 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자본재 등의 투자관련 품목들은 신기술 및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해 R&D 투자를 확대할 필요
- 국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지닌 ICT 품목 등을 중심으로 제품 프리미엄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시도할 필요
 - 제품 프리미엄 확보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비가격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인 R&D 투자 확대가 필요

■ **끝으로, 현재 추진 중인 한-중 FTA 체결에 대비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**

- 중소기업은 주력품목과 유망 소비재 등에서 관세인하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개선 및 중국내수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등으로 FTA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
- 또한 비관세장벽 해소에 있어서도 기업 애로사항을 실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정과 메커니즘 도입이 필요
 - 특히 중국의 복잡한 인허가 규정이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에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만큼, 이에 대한 개선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- 그 외, 중국의 빠른 기술추격 현상을 고려하여 관세양허 및 기술협력 분야 협상 시 중장기적 통찰력이 요구되며, 국내적으로는 동 FTA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중국 신시장 개척을 위해 산업정책 전반에 걸친 재편이 필요

3) “한국의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과 시사점”, 최석원, 2014년 6월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KOSBI 중소기업 포커스

발행인 : 김세종

편집인 : 김세종

발행처 : 중소기업연구원

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 타워 (121-904)

전화: 02-707-9800, 팩스: 02-707-9894

홈페이지: <http://www.kosbi.re.kr>

인쇄처 : 경성문화사

-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(연구진)의 견해이며,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